

주간 통일정세

2015-47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북핵 국제공조 강조는 반공화국 추태” 주장(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24일 서기국 보도에서 “남조선 집권자는 20개국 및 지역 수뇌자 회의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수뇌자 회의니 하는 국제회의들에 나타나 우리를 반대하는 체질화된 본태를 드러내놓았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함.
 - 조평통은 또한 “사실상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가리우고 저들의 대결 정책과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부질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조선반도 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라며 4D작전계획, 작전계획5015,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 등을 예로 설명함.
 - 또한 조평통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 때문”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험이 존재하는 한 더욱 강화될 것이며 흥정물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국방위원회도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격 높음을 벌려놓았다는 그 자체가 동족 대결을 노린 가장 악랄한 군사적 도발이며 5년 전의 참패를 망각한 무모한 불장난”이라고 강조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IS 불똥’ 차단 주력…“연계 가능성 주장은 모략”(11/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과 IS의 연계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한 데 대해 “동족에 대한 모략과 날조”라며 강하게 반발함.
 - 매체는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것이 남조선 정보원의 업무”라며 “남조선 당국은 정보원을 내세워 무슨 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설을 내돌리게 함으로써 여론을 동족대결로 돌려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앞에서는 북남대화를 운운하면서도 뒤에 돌아앉아서 대화 상대방을 부정하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와의 북침전쟁 연습을 매일같이 벌리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핵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내외는(안팎에서는)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행위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지난 8월 합의 이전으로 돌려세울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면서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서북도서 사격훈련에 “군사적 도발” 억지(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격 놀음을 벌려놓았다는 그 자체가 동족 대결을 노린 가장 악랄한 군사적 도발이며 5년 전의 참패를 망각한 무모한 불장난”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아무리 당한 패전이 참혹하고 창피하다고 해도 시인할 것은 스스로 시인해야 한다”며 “불바다에 잠겼던 연평도의 그날을 상기하기가 괴로우면 다시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남한 당국이) 어용매체를 동원해 우리 군대가 10여명이나 사망하고 수십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꾸며 여론에 내돌렸다”며 “사실 겁에 질려 쏘아댄 놈들의 눈먼 포탄 파편 하나가 들판에 있던 한마리 황소의 뒷다리에 박혔을 뿐”이라고 강조함.
 - 또한 “남조선 당국이 여전히 적대와 대결로 일관된 대북정책 추구가 저들의 일관된 원칙임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냈다”며 “지금은 걸발린 말치레보다 진정어린 하나의 실천 행동이 중할 때”라고 밝히면서, “북과 남 사이에 여러가지 현안이 일정에 올라 있는 시점에 남조선 당국이 벌려놓은 모든 대결 망동이 어떤 후과(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경고하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주시해볼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 “美, 한국에 신형 하푼 미사일 팔지 말라” 비난(1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무엇을 노린 무기판매 놀음인가’란 논평에서 “미국이 남한에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하푼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무기판매 놀음은 우리 겨레에게 동족 상쟁을 몰아오는 범죄적 책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무기판매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조선민족끼리 서로 대결하게 하자는 데 있다”면서 “미국이 남한을 상대로 무기들을 계속 팔아먹으면 그로 하여 남한이 상상하기 어려운 참혹한 후과(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화약고로 전변되어 갈 것”이라고 경고함.
- 논평은 또 “미국이 남한에 첨단 무장 장비들을 들이치는 것이 우리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이 된다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이는 저들의 범죄적인 무기 배비(배치) 및 판매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황당한 꾀변이다”라고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북한 매체, 당국회담 실무접촉 결과 짧게 보도(11/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26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쌍방은 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며 “제1차 당국회담을 12월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당면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12·11 당국회담’ 앞두고 SLBM 발사시험 의도는(11/29, 연합뉴스)
 -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이후 동해 상에서 북한이 SLBM 수중 사출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사출시험 과정에서 미사일의 궤적은 포착되지 않고 SLBM의 캡슐(보호막) 파편만 동해 상에서 포착돼 정상적인 사출시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北 폭설로 일부 지연(1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통일부 발표를 인용하여 남한과 북한, 러시아 3개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3차 시범운송이 북한 나진·선봉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함.

- 뉴스는 벌크선(4.5만t) 2척을 이용한 러시아산 유연탄 12만t 운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컨테이너선(1만t) 1척을 이용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 운송은 도로 사정에 따라 미뤄졌다고 알렸으며, 이에 통일부 당국자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 3사는 12월 5일까지 여건이 되는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을 전함.
-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시작된 벌크선을 이용한 러시아 유연탄 운송은 이달 30일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점검단은 북측의 협조하에 애초 계획한 대로 석탄 운송의 안정성, 선박 2척 동시접안, 2차 시범운송 때 제기된 사항의 개선 여부 등을 점검했고 선박 2척 동시접안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우리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北의 당국회담 등 남북대화 호응’ 언급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北)의 진심어린 노력에 대한 모독,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결악습 철회, 체제대결 추구 행위 중단’ 주장(11.24,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 군부의 ‘연평도포격도발→연평도포격전’ 명칭 변경 제안은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려는 광대극’으로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침략의 본거지들은 모조리 불바다에 잠기게 될 것” 위협(11.24, 중앙방송·평양방송)
- 현 남북관계 관련 ‘南 당국은 대화를 떠들면서 반공화국 핵공조와 인권모략공조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이 빚어낼 것은 남북관계 파국뿐’이라고 주장 및 ‘실천행동으로 대화와 관계개선 의지를 보일 것’ 요구(11.25,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해외순방(G20·APEC 등) 기간 북핵발언(北,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 핵개발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 등)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여 대화분위기를 사전에 깨보려는 용납 못할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며 ‘우리(北)의 핵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으로서 절대로 문제시 될 수 없다’고 주장(11.26, 중앙통신)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11.27), ‘연합뉴스’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11.26, 학술회의) 보도(김정은 공포통치 등)는 “최고존엄 모독,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으려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南 당국과 보수언론’ 위협(11.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대통령의 G20·APEC 정상회의 ‘북핵 국제공조’ 등 발언에 대해 ‘反北 핵공조를 애걸할수록 북남관계는 파국에 빠지고 대결과 긴장은 고조되게 될 것’이라고 지속 비난 및 ‘핵억제력 강화’ 강조(11.27, 중앙통신·노동신문)

-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거와 평화적 환경마련은 민족의 운명과 남북관계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 문제”라며 이를 위해 ‘남한 당국의 對美 공조 및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적 환경조성 방향전환’ 주장(11.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추모행사를 거론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이번 처사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은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하며 정세파국을 조장하는 도발적 연행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11.28,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반발…“엄중한 도발”(11/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조선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조선(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은 자주적인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목적으로 추구하는 범죄적 문건으로서 이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은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버젓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실태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진짜 테러지원국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덧붙였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의 재지정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조선을 반대하는 악선전을

중지하라”고 요구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조항 일부 철회”(11/2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2001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했던 3개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에 대한 유보를 14년만에 철회한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지난 23일 이 같은 결정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함.
 - 북한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법률·규칙·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과 자녀의 국적에 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했으며, 이에 따라 당사국간 분쟁이 직접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재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조항만 북한의 유보조항으로 남음.
 - 방송은 “유보는 다자조약 체결 시 특정 조항의 효과가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국이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라며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유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스탠리 브라운 美 국무부 산하 무기제거감축청장의 발언(대인지리 한반도 내에서만 사용 등)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고 오직 우리 민족의 영구분열과 북침전쟁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北)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지 않으려면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지체 없이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11.23,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美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北美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열쇠'라며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되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고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11.23,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11월 23일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에게 '친선훈장 제1급' 수여(1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단장 : 에르데네 바트-울 수도행정장관 및 시장)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1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과 미림승마구락부 등 참관(1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군사대표단(단장 :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11월 22일 라오스 비엔티안 도착(11.23, 중앙방송)
-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의 '완전한 파산과 철회'를 주장하며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의 유엔총회 제30차 회의 결의 이행 및 평화협정체결" 요구(11.24, 중앙통신·노동신문) 미국의 '北 인권문제 제기('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서울인권회의' 발언 등)'를 "대조선 제도전복을 노린 가소로운 추태"라며 '미국의 對北 전복책동에 단호히 대응 및 북한식 사회주의제도 고수' 강조(11.24, 중앙통신 논평)
- 美 공군의 '신형 지상발사전략핵미사일계획 추진' 전언(워싱턴 타임스 인용) 및 이는 "전략핵무력분야에서 유일초대국 지위를 부지해보려는 필사적 발악"으로 '미국은 핵군비경쟁 장본인, 핵전파·위협 주범'이라고 비난(11.24,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군사 대표단(박영식, 인민무력부장)-라오스 국방성 대표단(생누안 사이나랏, 국방상) 회담, 11월 23일 라오스 국방성청사에서 진행 및 '兩國 군대의 협조문제 강화 협의'(1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불교계 대표단(명예단장: 아리마 라이데이, 일본 교토 불교회 이사장·단장: 니시오카 료고, 영만지 지주·천태종 이전 중무총무), 11월 24일 평양 도착(11.24, 중앙통신·평양방송)
- '티트 산 썬디 칭' 타이록쓰팩크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 11월 24일 평양 도착(11.24, 중앙통신·평양방송)
-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 11월 24일 평양 출발(1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패트리엇요격미사일 종합체배치사업 완료' 및 헌법 9조 개헌 움직임 관련 '적극적 평화주의의 정체는 군국주의이고 재침론'이라며 '대동아공영권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11.2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11.25)] 시리아와 이라크 등의 피난민 사태를 거론 '사상최대의 피난민 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피난민문제 해결의 핵심은

- 인권범죄의 주범인 미국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선동(11.26, 중앙통신)
- 北 군사대표단(단장 :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11월 25일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차 호치민시 도착(11.26, 중앙방송) 미국의 일본과 대규모 해상 합동군사훈련(11.16~ 日 남해)은 "우리(北)와 주변대국들을 목표로 한 것"으로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말살 하는 주범'이라고 비난 및 '자위적 조치 대응' 강조(11.27,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27일 모리타니 대통령(모하메드 올드 아브엘라지즈)에게 '모리타니 독립 55주년' 축전(11.27, 중앙통신)
- 주북 라오스 대사, 11월 27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自國 창건' 40주년 연회 개최 및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궐 부위원장)·리룡남(대외경제상)·김정숙(대외문화연락 위원장)·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초대(11.27, 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단장: 정영원 부위원장), 11월 27일 쿠바·베네수엘라 방문 후 귀환(11.27, 중앙통신)
- 일본 불교계 대표단, 11월 27일 귀국(11.27, 중앙통신)
- '티트 산 썬디 청' 타이록스팩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 11월 24일 귀국(11.27, 중앙통신)
- 北 군사대표단(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대장), 11월 27일 주석부에서 베트남 주석과 담화(11.28, 중앙통신)
- 北 최고검찰소대표단(단장: 장병규 소장), 11월 28일 베트남방문차 평양 출발(11.28, 중앙통신)
- 美 국무부의 신형 '하푼' 미사일 한국 판매 승인 관련 '미국이 무기판매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조선민족끼리 서로 대결하게 하자는 데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비난(11.29,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軍 수산사업소 시찰...“시설 완벽히 구축”(1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업소가 현대적으로 개건됐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 수천t의 도루메기(도루묵)을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김정은 동지가 찬미가 쏟아지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나먼 사업소를 다시 찾으셨다”고 설명함.
 - 통신은 이번 현지지도에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조남진 중장을 비롯해 지난 20일 8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금고지기’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이 함께했다고 덧붙임.

- 김 제1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사업소의 현대화에 만족감을 표하며 “기상예보 체계, 해상지휘체계, 물고기가공지휘체계,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지휘 체계, 수천t 능력 초급동 및 냉동시설을 완벽히 구축했다”고 밝혔고 이어 “군인과 인민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것이 사업소 개건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아내들도 모두 떨쳐나 물고기 가공 전투를 벌리고 있는 애국자 가정들”이라고 치하함.
- 북한 김정은, 군인예술축전 당선 공연 관람(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7차 군무자(군무원) 예술축전’에서 당선된 중대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구체적인 관람 일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축전에서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549군부대, 제264군부대, 제233군부대, 제630군부대 산하 중대의 공연이 당선됐다고 전함.
 - 통신은 “중대 군인들이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을 무대에 올렸다”며 “출연자들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훈련명령 관철을 위해 훈련장을 달리는 일당백 싸움꾼들의 전투적이며 기백에 넘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밝혔으며, 김 제1위원장이 이날 “중대예술소조활동을 통해 군인들은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된다”며 “인민군대는 이 사업을 전략적 문제로 틀어쥐고 일관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임.
- 김정은, 동북선물로 돌격대원 ‘환심사기’(11/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백두산관광철도’ 건설자들에게 보내준 겨울옷 선물전달식이 현장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 ‘김정숙예술극장’에서 있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24일 보도함.
 - 소식통은 이날 열린 선물전달식에 전용남 중앙청년동맹 위원장과 리상원 양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참석해 ‘선물전달사’를 낭독했으며, 돌격대 각 여단들에 ‘선물증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덧붙임.
 - 또다른 소식통은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보내준 김정은의 선물 동북은 ‘평양피복공장’에서 만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외출용 동북은 장마당에서 인민페 80위안(한화 1만6천원)에 파는 중국산 동북과 재질이 비슷하다며 작업용 동북 역시 압착 솜을 넣었다고 하지만 방수천 재질이어서 외출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만들었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연일 수산사업소 시찰..“생산량 비약적으로”(1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제1위원장이 ‘물고기 대풍’을 추진하는 인민군 제549부대 산하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서흥찬 군 상장과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한광상이 수행했으며 현지에서 대연합부대 정치위원인 장동운 중장이 맞이했다. 매체는 김 제1위원장의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사업소 일꾼들과 어로전사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업소를 멋들어지게 개건 현대화하고 더 훌륭한 물고기잡이 성과를 안고 제7차 당대회를 맞이하기 바란다”고 독려함.
 - 이어 “사업소에서 올해 성과에 토대하여 짧은 기간 내에 연간 물고기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함.

- 北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시찰...“공장 팡팡 돌아가”(11/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원산구두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인민에게 안겨주는 모든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요구”라며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독려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공장이 ‘팡팡’ 돌아가고 있다”며 “1월에 돌아볼 때보다 공장 환경이 더 밝아진 것만 같다”고 평가했고,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한광상이 이번 시찰을 수행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기쁘다”면서 “공장에서 ‘매봉산’ 상표 구두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통신도 “공장이 도안실을 새로 꾸리고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했으며 설비 현대화사업도 밀고 나가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선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김영남, ‘테러 피해’ 말리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테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서아프리카 말리 대통령에게 24일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 말리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귀국의 수도에서 극단적인 테러 행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해 각하와 귀국 정부와 인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전, 사회 정치적 안정과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국 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 일본신문 “北최룡해 평양에서 정치학습설”(11/25, 닛케이신문)

-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룡해가 일부에서 보도된 지방이 아닌 평양에 체류중이며, 이는 언젠가 재기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설명함.

- 나카자와 편집위원은 최룡해에 대한 처분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 행사에 맞춰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으며, 원래 최룡해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리 총리의 평양행을 성사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이에 대해 중국이 리 총리의 방북을 거절하여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김 제1위원장이 불만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문천강철공장·룡양광산·대동강뱀장어공장에 ‘김일성·김정일父子 형상’ 모자이크벽 화 건립 및 각각 준공식 진행(1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남포시 철도건설여단 ‘림시화’ 노동자 등에게 감사(11.25, 중앙방송)
- 「농근맹」 중앙위 제7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1월 25일 리명길(「농근맹」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1.25, 중앙통신)
- 황해북도 연탄군, 모범지방공업군 칭호 수여(11.25, 중앙통신)
- 교육도서출판사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11월 25일 최태복(黨 비서, 축하문 전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11.26, 중앙방송)
- 제4차 전국 직맹모범초급단체위원장대회, 11월 27일 평양에서 진행 및 리일환(黨 부장)·주영길(「직총」위원장 보고)과 관계부문 일꾼들·직맹초급단체위원장·중앙과 지방 직맹일꾼들 참가(11.27,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현지지도 1주년’ 기념보고회, 11월 26일 진행 및 박춘남(문화상) 등 참가(11.27, 중앙방송)
- 제국주의의 내정간섭과 압력, 침략이 계속되는 국제환경 조건에서 “자주적대가 약하면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할 수 없다”며 ‘자주·선군·사회주의 길’ 不變 고수 역설(11.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청년들을 당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우고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黨 제7차대회를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자’고 연일 선동(11.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제8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1월 29일 주영길(직총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1.29,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내각기업 권한과 역할 구분 강조...‘분권화’ 전략(김일성종합대학학보, 7/20; 11/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5년 3호(7월20일 발행)에 수록된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과 기업체의 임무와 권한을 똑바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이 글이 “임무와 권한을 똑바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 주동성, 창발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중요 조건”이라고 지적했음을 보도함.
 - 또한 이 글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책임과 역할을 어느 높이에서 발휘하는가에 따라 경제 발전에 대한 추동 정도가 좌우되며, 이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모르면

책임성이 약화하고 경제 사업이 잘못됐을 때 책임 회피에 매달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체는 경제의 개별적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지도기관(내각)은 경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임무가 무겁고 중요하다”며 내각의 기능도 강조함.

- 北 “해상경보에도 결사적인 물고기잡이 전투 벌여”(1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3면 기사들을 통해 “지금 해상경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인민군대 수산 부문 일꾼과 어로전사는 불사신이 되어 사나운 날(넓은)바다와 싸우며 결사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인민군대 수산 부문에서 이룩되는 기적과 혁신은 불씨가 되고 봉화가 되어 물고기잡이 전투가 벌어지는 동해 전역을 용암마냥 세차게 끓게 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신문은 ‘수산성지휘부 무선대화실(통제실)에서의 1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대화실이 야전지휘소를 방불케 한다”며 “물고기잡이 실적은 당대회를 전혀 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당의 호소를 받은 일꾼과 노동계급의 충정의 열도”라고 강조함.
 - 또한 신문은 28일 사설에서도 “오늘 동해 전역에서 인민군대 수산 부문의 고깃배들이 높이 울리는 만선의 뱃고동소리는 사회의 수산 부문들에 고무적인 힘을 안겨주고 분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치하함.

나. 주요 조치

- 北, 평양 인터넷통신국 착공…“사회주의 건설에 중요”(11/25,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5일 평양의 인터넷 통신국 착공식이 열렸으며, 착공식에는 김광철 체신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체신부문 일꾼들과 티트 산 샌디 청태국 록스팩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 체신상은 착공식을 선포한 뒤 “나라의 통신을 현대화하고 체신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했으며, 샌디 청 록스팩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되는 평양 인터넷 통신국은 북한과 태국 사이의 오랜 친선관계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양강도, 일부 기관에 감자전분 배급(11/2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당국이 “올해 모든 주민들에게 식량으로 5개월분의 감자를 공급한데 이어 최근에는 배급대상인 기관기업소들에 석달 분의 감자전분을 따로 공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올해 양강도의 감자농사가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생산량을 기록함에 따라 수확한 감자의 보관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보도함.
 - 소식통은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양강도에서 수확한 감자를 즉시 지역주민들에게 배급으로 주고 감자전분으로 만들어 사회급양(식당) 망들에 음식재료로 공급해 왔다고 하며 올해는 배급을 다 주고도 보관이 어려울 만큼 많은 감자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보관문제가 제기되자 남는 감자들을 모두 전분으로 만들도록 협동농장들에 지시했다고 덧붙임.
 - 또한 소식통은 올해 양강도가 보천군과 운흥군, 삼수군에서 정보당 30톤 이상의 감자를 수확했고 대흥단군과 백암군 ‘10월 8일 협동농장’, 삼지연군 ‘포태 국영농장’은 정보당 최고 50톤의 감자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함.

- 北 매체, 국산품 사용 독려…“경제난 타개 방편”(11/26,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조선중앙방송은 26일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소’에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지하철)를 개발, 생산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함.
 - 노동신문도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빛내이자’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에서 생산한 트랙터, 자동차, 불도저 등을 소개하며 “제 힘을 믿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면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국산제품을 홍보함.
 - 또 ‘약용 치약’을 개발한 한 연구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로 우리 식의 제품을 개발했다”며 그를 치켜세움.

다. 경제 상황

- 북한 매체, 평양골프장 홍보…“당일 여행에 이상적”(11/23,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3일 ‘평양골프장’의 위치와 시설을 소개하며 “당일 여행으로 이상적인 명소”라고 선전함.

- 매체에 따르면 태성호 호수를 낀 평양골프장은 지난 1994년 개장한 18홀 골프장으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있어 자동차로 30분 걸리며 부지 면적은 120정보(약 119만㎡)에 길이는 7km에 달함.
- 이에 매체는 “골프장에는 하루 100여 명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재와 봉사인원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면서 “건물 안에는 식당, 상점, 한증탕, 휴식실 등 봉사 시설도 편리하게 꾸려져 있다”고 소개했고, 평양시 청춘거리에는 30개 타석을 가진 ‘평양골프연습장’도 있다며 “골프연습을 시작하거나 골프장에 갈 시간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맞춤한 이곳 주변에 호텔들도 있어 사람들이 연습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올해 왕가물·수해에도 개인 소토지·땀기밭은 풍년”(11/24,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4일 양강도 소식통이 “노동신문에서는 왕가물(가물)과 홍수 피해와이에 대한 국가와 주민들의 복구 작업 등에 연일 선전을 했지만, 특별히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없다”면서 “가물과 장마가 쌀 수확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협동농장 간부들은 말한다”고 전했음을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특히 개인 소토지나 땀기밭의 경우 양수기나 물뽀뽀(펌프)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수차(水車)를 제작해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이 많았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이것 저것 공을 많이 들인 소토지에서의 수확이 예년보다 좋아졌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고 덧붙임.
 - 소식통에 따르면 협동농장은 평작인 가운데 개인 소토지에서의 작황이 풍년이 되면서 장마당에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개인 소토지에서 생산된 쌀이 개인 가정에서 소비되고 남은 쌀 등이 시장으로 유입되어 현재 1kg당 쌀 가격은 평양 4880원, 신의주 4800원, 혜산 475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해짐.
 - 이에 대해 소식통은 “쌀 수확이 완료되고 현재 농장원들에 대한 결산분배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특별히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국가 쌀은 우리 같은 백성들이 아닌 군대나 인민위원회 간부 등 평소에 놓고먹는 사람들만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처럼 주민들은 국가 농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쌀을 사먹거나 소토지를 통해 얻은 식량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함.

- “北보안원, 북한돈·달러 환차익으로 막대한 돈 벌어”(11/24,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4일 보도에서 인민보안부 소속의 평양 승차(철도) 보안서 간부들이 북한 지역 환율차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북한 전 지역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싼 지역에서 환전해 비싼 지역에 환전한 돈을 돈주들과 환전꾼에게 전달해 주고 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함.
 - 소식통에 의하면, 보통 북한의 전 지역의 환율은 시장 및 장마당 내에서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북한 돈 500원 내외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와 구속도 없이 벌어들인 돈은 승차 보안서의 ‘기관자금’ 명목으로 입금되기보다 관련 간부들 주머니에 들어간다”면서 “일반 승차 보안원들은 환전벌이 보안원들 덕분에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들의 이러한 환전행위를 잘 보조해 주고 있고, 열차 승객들과 열차 승무원들은 환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돈 동지’라고 부른다”고 전함.

- 북, 지역별 기름값 차이 커(11/2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의 유류 수급사정이 전보다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에 따라 기름값 편차가 크다고 25일 보도함.
 - 평양 주민 소식통은 최근 “요즘에는 연유(휘발유)나 디젤유를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서 “기름값도 전에 비해 낮어져 써비차를 굴리면서 먹고 살만하다”고 전하였고,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역마다 기름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지역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디젤유의 경우, 신의주에서는 Kg당 0.7달러인데 평양에서는 0.57달러이고 연유(휘발유)는 이보다 0.25달러가 더 비싸다”고 설명함.
 - 현재 휘발유 1kg은 약 1.4리터, 디젤 1kg은 약 1.2리터임을 감안하면 신의주의 기름값은 리터당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각각 4.4위안과 3.7위안 정도로 중국보다 훨씬 싼 가격인데, 이에 소식통은 “국제 유가하락과 대부분의 기름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싼값으로 지원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기름값이 결코 낮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함.

- 北, 북한산 경공업품 우수성 찬양…‘김정은 업적’ 부각(11/26,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6일 ‘국내산 상품들로 인기를 끄는 평양제1백화점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화점 어느 매대나 국내산 상품들이 그득해 마치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방불케 했다”고 소개함.

- 매체는 가장 인기있는 제품들로 여성 대상 미용 상품을 소개하면서 ‘코스모스’ 상표 머리빈침(머리핀), ‘봄향기’, ‘은하수’ 상표 고급화장품, ‘철쭉’ 양말이나 류원신발공장의 신발, 경성도자기공장의 경질그릇도 많이 팔린다고 설명함.
- 이어 ‘릉라’, ‘봄빛’ 빵, ‘대동강병맥주’, ‘평양소주’, ‘랭천사이다’, ‘강서약수’도 구입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것이 제일”이라 얘기한다고 자랑했으며, “원수님께서 경공업부문 공장과 기업소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찬양함.

■ 전력난 북한, 전기 절약형 ‘조명용 스위치’ 개발(11/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작고도 큰 예비-조명용 자동지연 스위치’란 글에서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조명용 자동지연 스위치를 설계 제작해 대대적으로 도입, 나라의 긴장한(빠듯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 기사에 따르면 이 스위치는 소리·진동·빛 감지장치, 시간 지연장치, 조명등 구동장치,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신문은 “조명등을 켜놓을 필요가 없는 낮에는 빛을 수감(감지)해 조명등을 자동적으로 끄고 있다가 날이 어두워졌을 때 진동과 소리를 감지해 자동으로 켜고, 조명등이 켜진 때로부터 약 20초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다”고 작동 원리를 설명했으며 “수입산보다 가격도 낮고(싸고) 성능이 훨씬 개선돼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 이 스위치의 수요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임.

■ 북, 관광객 유치하려 룡강온천 띄우기…“광물질 많이 함유”(11/27,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7일 ‘평화의 오아시스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이란 글에서 “브롬이온과 라돈이 함유된 룡강온천은 공화국(북한)의 온천, 약수들 가운데서 광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 “ 룡강온탕원은 이 온천을 이용해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수술후유증, 만성위염, 만성대장염, 피부병 등을 치료해 주고 있다”며 “건강 증진에 특효가 있어 손님들의 각별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해외동포와 외국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매체는 “룡강온천을 찾은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은 온천 주변 산과 바다 등 수려한 자연경관에 감탄해 세계자연보물고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자랑하면서, 이곳을 찾은 스위스 관광객들도 “평화의 오아시스에서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기 온천은 몸도 마음도 상쾌하게 해 주는 하나의 낙원”이라 말했다고 선전함.
- 北돈주, 한끼 식사 비용 무려 200\$…“쌀 320kg 살수 있어”(11/27,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7일 평안남도 소식통을 통해 “김정은 시대 들어 평양시는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동진 양면의 도시로 변모되고 있으며, 간부·돈주들은 고급식당에서 한끼 식사에 수백 달러 소비할 때, 일반 시민들은 시장 하루벌이로 살고 있는 빈부격차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광복거리 체육촌에 있는 ‘오리고기전문식당’과 ‘금컵식당’ 등 이름 있는 고급식당에는 하루에도 오리훈제를 비롯한 각종 고급 요리식사를 하는 간부·돈주들이 넘쳐난다”면서 “이들의 식사비용은 일인당 최소 50달러가 넘으며, 4인 가족이 최소 200달러는 소비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고, “200달러면 북한 시장 환율로 북한돈 160만원이 넘는데, 현재 쌀 1kg 가격이 5000원 정도로써 이 돈이면 쌀 320kg을 쌀 수 있는 큰 돈”이라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김만유병원, 항균력 강한 ‘나노은(銀) 수술용 봉합사’ 개발(11.23, 중앙통신)
- 전국 과수부문과학기술전시 및 발표회, 11월 24일 인민대학습당에서 개막(~11.26) 및 과학연구 및 기술혁신성과자료 90여건·80여점의 우수한 과일품종들 전시(11.24, 중앙방송)
- 온천화강석광산에서 화강석 2배 이상 생산 등 화강석광산들의 지난해 대비 ‘화강석 생산 혁신적 성과’ 선전(11.24, 중앙통신)
- 전국정보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24~25 평양에서 진행(11.25, 중앙통신)
- 가정용 의료진단 및 치료지원체계 ‘명의원’, 각지 정보기술교류소들에서 널리 판매보급(11.25, 중앙통신)
- 평양건축종합대학, 공업폐설물로 건재품들 생산하는 방법 확립(11.25, 중앙통신)
-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5 폐막식, 11월 26일 광범기(당 비서)·리철만(내각부총리 겸 농업상/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과학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진행(11.26, 중앙통신)

- 전국 칠감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11월 25일과 26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로 평양에서 진행(11.26, 중앙통신)
- 우주과학기술토론회, 11월 25일과 26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11.26, 중앙통신)
- 제5차 전국 술·기초식품 및 어린이 식료품전시회,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11.26, 중앙통신)
- 석탄공업부문 청년돌격대들, 연간굴진계획 120% 수행 및 석탄 증산에 주력(11.26, 중앙통신)
교육도서출판사 창립('45.11.25)
-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25일 진행 및 현광철(사장 겸 책임주필/보고) 등 참가(11.27, 중앙방송)
- 각지 「농근맹」 일꾼·농업근로자들, 11월 26일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서 9종·수백그루 나무심기 진행(11.27, 중앙통신)
- 김책수산사업소 등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의 11월 물고기잡이 계획 123% 초과 수행(11.27, 중앙방송)
- 北 각지,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 마련을 위한 건설사업 추진(11.28, 중앙통신)
-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 11월 29일 박영호(황해남도당 책임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진행(11.29,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北, 장마당에 '주택 브로커'...이색 자영업자 속출(11/2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7일 "(장마당에) 숙박 업주, 노래방 업주,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났다"면서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는 부동산 거간(브로커)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방송은 "1990년대 장마당 내 (판)매대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최근에는 숙박업과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대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밝힘.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 ‘외국소식 유포’ 만수대TV 제작진 숙청”(11/2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7월부터 만수대 텔레비전 방송이 중단된 배경에 대해 “당국이 자본주의 황색 녹화물을 퍼뜨린 혐의로 만수대텔레비전 제작국을 지난 7월에 해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소식통은 “지금까지 방영된 만수대 TV 프로그램은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총국 산하 만수대 텔레비전 제작국이 편집해왔는데, 일부 직원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편집되지 않은 내용을 USB 기억기에 담아 빼돌린 것을 보위부가 적발하면서 사건이 터졌다”고 전했으며, 이에 “북한 보위부가 만수대 TV 제작국을 전격 조사했으며 주모자들을 숙청하고 감옥과 혁명화에 보냈으며, 가족들은 평양시에서 쫓아냈다”고 덧붙였다.

마. 사회 동향

- 북 수사기관, 돈 되는 사건만 다뤄(11/2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에서 돈을 노린 강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사법당국이 회수금(압수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골라 수사에 착수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에서 사건조사는 돈이 안 되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어떤 강력범죄도 돈과 관련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북한사법당국의 태도”라고 지적함.
 -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강도사건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자식들이 범인이 강탈했다 회수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건을 맡은 도 검찰에서는 사건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건 초기에는 증거불충분이라며 수사착수도 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피해자 측에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출처를 대라”고 따지면서 회수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수사과정에서 당국에 압수된 돈을 다시 찾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강조함.

- 조선총련 前선전간부 “대북종속 끊으라”…집행부에 직격탄(11/24, 연합뉴스, 산케이신문)
 - 연합뉴스는 24일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전직 간부가 대북 종속관계를 끊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해 총련 사회 내부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함.
 -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히로시마(廣島) 지방에서 선전간부 등을 역임한 고충의(70·도쿄 거주) 씨는 지난달 중순 도쿄에서 열린 총련 산하 상공회 70주년 기념행사때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전원 귀환시킬 것, 모든 시설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철거할 것 등을 요구하는 제언서를 배포했는데, 이 제언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할 것, 북한과의 종속관계를 끊기 위해 조직의 간부는 조선노동당의 당적을 이탈하거나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맡을 것,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을 거쳐 사라진 방대한 자산의 행방과 그 책임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짐.
 - 신문은 또한 이 제언서가 북한의 납치 문제와 개인 숭배 등에 대해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죄를 쌓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배포하던 도중 회수돼 배포자 고 씨가 사실상 제명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임.

- 북한 11월 비 많고 기온 높은 ‘이상기후’…“엘니뇨 탓”(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서 이달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많고 기온은 3℃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엘니뇨 탓이라고 2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지난 1~20일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66.6mm로, 평년(27.4mm)의 2.4배이며 이는 북한이 기상을 관측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양에 달하는데, 특히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지방과 서해안 북부 지방에서는 최대 330mm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함.
 - 통신은 이 같은 이상 기후에 대해 엘니뇨로 인해 아열대 고기압의 활동이 강화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북한 대부분 지역에 머물러 북쪽의 찬 공기가 흘러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날씨 현상이 11월 말까지도 지속되고 겨울철에도 영향을 줘 날씨 변화가 우심해질(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전함.

- 북 주민들 “김정은 옷차림 촌스러워”(11/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해마다 겨울철을 맞으며 북한 주민들속에서 인기를 모으던 ‘장군님의 동복’이 요즘 들어 찬밥신세여서 “겨울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장군님동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장마당에서도 팔리지 않는다”고 보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 속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겨울옷은 ‘장군님(지도자) 동복’이었다고 설명한 이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이 입는 여름용 반팔이나 겨울용 잠바(점퍼)는 값이 비쌌지만 주민들 속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전하면서, 이에 반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주민들 속에서 ‘장군님 옷차림’은 점차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장군님 옷차림’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인기만을 생각하고 김정은 집권이후 그가 즐겨 입는 형태의 외투를 많이 만들어 놓았던 재봉공들은 옷이 팔리지 않아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임.

- “북한국적 미국유학생 8명…작년보다 11명 감소”(11/2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 말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인 북한 학생은 모두 8명으로, 2013~2014 학사연도의 19명보다 11명이 줄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하여 한 북한이탈주민은 국무부 직원과 면담에서 미국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난 2000년에 201명을 기록한 이래 최근에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학술교류도 거의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임.

- 北 김은국 선수, ‘2015 세계역도선수권대회’(미국) 인상 종목에서 금메달 획득(1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청년전위들의 ‘총정의 이어달리기’ 대열, 자강도 통과(11.27,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전문가 “북핵 방치 말라”…‘北 靑 6자회담’ ‘선제타격’ 주장도(11/23, 연합뉴스)
 -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내놓은 ‘정책 혁신메모’에서 “더 늦기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을 靑 5개국(한·미·일·중·러)만으로도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5자가 모여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추구할 경우 어떤 혜택을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서 북한 지배계층 사이에 핵무기 보유에 따른 편익 논쟁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하며, “미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 북한 붕괴 시 38선 이북으로 미군이 영구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약하고 제재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그는 또한 “북한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차기 행정부는 북한발 위기 앞에서 가용한 옵션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음.
- 한·중 6자회담 수석 베이징 회동…북핵문제 전반 논의(11/25, 연합뉴스)
 - 25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전날 오후 회담과 만찬을 포함해 3시간의 만남을 걸쳐 6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핵 문제 전반, 그리고 최근 북한정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음. 특히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달 10일 북한을 방문한 이후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 우리 정부 당국자는 황 본부장의 방중 직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와 더불어 제재·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도 구체적인 북핵 해법에 대한 기존의 입장 차이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임.

-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압박·제재를 병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압박·제재 강화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중·북 관계

- 중국공산당 ‘북·중 교류’ 새 시령탑에 쑹타오 임명(11/26, 연합뉴스)
 - 26일 관찰자망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중련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부장에 쑹타오(宋濤·60) 중앙외사공작영도 소조 판공실(중앙외사판공실) 상무 부주임이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 2000년부터 외교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쑹 신임 부장은 2011년 외교부 부부장에 오른 뒤 시진핑 체제가 시작된 2013년 말 중앙외사판공실 부주임을 거쳐 장관급 직책인 상무 부주임에 임명됐음.
 - 쑹 신임 부장이 오랫동안 외교 분야에서 근무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북·중 교류에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진핑 체제 출범을 기점으로 북·중 관계를 기존의 ‘혈맹’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반기문 “이른 시일 내 북한 방문 노력하고 있다.”(11/24,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북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반 총장은 “북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고, 언제 방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서로 일자를 조정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한 간의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의 방북을 포함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 해군 순항훈련전단 뉴욕 입항…한국전 참전에 ‘감사’(11/23, 연합뉴스)
 - 한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입항해 미국 해안경비대와 교민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구축함인 강감찬함(4천 400t)과 군수지원함인 대청함(4천 200t)에 승선한 해군사관생도 140여 명을 포함한 장병 65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뉴욕 맨해튼 크루즈터미널에 무사히 도착했음.
 - 이날 크루즈터미널에서 열린 환영행사에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패트릭 마이클 뉴욕지구대장과 뉴욕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권기환 부총영사, 뉴욕한인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음.
-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39위 올해 신원확인”(11/23,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의 미군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올해 39위의 유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최근 DPAA 공보관 리 터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 터커 공보관은 VOA에 “DPAA가 2015년 회계연도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DPAA가 2011년 미군의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K208 프로젝트 팀’을 출범한 뒤 최고의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음.

- 주한 美해군사령관 “한국 해군과 잠수함·해상순찰 공조 강화”(11/24, 연합뉴스)
 - 윌리엄 번 주한 미 해군사령관(준장)은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7함대와 한국 해군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3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 함정이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 7함대와 미 해군, 한국 해군의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번 사령관은 “주한 미 해군사령부의 부산 이전은 한·미 양국 해군이 한 곳에서 나란히 일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매일 접촉하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 해군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 또한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해군과 함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한·중 관계

- 中 “남북 정부대화 조속개최 희망” 환영(11/24,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과 관련해 “조속히 개최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홍 대변인은 “우호적 이웃국가로서 우리는 남북 양측이 대화·접촉을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화해·협력, 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안정 공동 수호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남북 정부 간 대화가 조속히 거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주한 中대사 “일대일로 실행에 韓 활발한 역할 환영”(11/24, 연합뉴스)
 - 추귀홍 주한중국대사는 24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시아’ 학술회의 오찬에서 “일대일로 구상의 실행 과정에서 공통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활발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장은 “일대일로 계획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상당한 규모의 접목을 이룩하려면 북한의 변화라는 전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자면 북한 사회의 개방도를 대폭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한다면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경제벨트의 형성은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지향을 협력에 쏠리게 할 것”이며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중 FTA 국회 비준 난항에 중국 측도 ‘촉각’(11/26, 연합뉴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중국 측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미 한·중 FTA 실행에 관한 모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한국 측 비준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음.
-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당정 고위관료들은 지난해 말 협정이 타결된 이후 한국 고위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조속한 발효’를 요청해왔음.
- 중국 언론들은 아직은 FTA 비준 처리가 여야 간 의견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역 언론들은 한·중 FTA 비준 과정이 막바지에 와있다는 소식을 잇달아 보도하며 한·중 FTA가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는 기사들을 잇달아 내보내고 있음.

■ “문화콘텐츠, 한·중 미래발전 신성장 동력 삼아야”(11/27,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창의적 문화 콘텐츠 공동개발을 통해 미래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음. 신봉섭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 총영사는 27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에서 열린 제3회 한국-중국 동북3성 공공외교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중 양국의 인문 유대 강화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고 양 국민 사이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인식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내수를 중시하는 신창타이(新常态) 시대로 전환하는 중국도 문화콘텐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 추진…興, 합의 불발 시 단독처리(11/27, 연합뉴스)
 - 여야 원내 지도부는 27일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30일 오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FTA 소관 상임위원 외교통일위원회를 잇따라 여는데 이어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음.
 -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을 거치는 동안 한·중 FTA 비준동의를 위한 쟁점 사항들을 일괄 타결해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30일 처리’는 정부 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며 FTA 비준동의 시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처리에 협조할 수 없으며 파행도 불사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이 다른 조건을 내세워 비준동의안 처리를 내달 1일 또는 2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로 하루 이틀만 연기하자고 제안할 경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음.

- 中, 남북 차관급 회담 개최 합의에 “환영…성과 희망”(11/27, 연합뉴스)
 - 중국은 남북한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11일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조한(북한과 한국) 쌍방이 관련 공동 인식을 달성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한다.”며 “정부 간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적극적인 성과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日외무상 “산케이기자 재판 적절한 대응 한국에 요구할 것”(11/24,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4일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과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선고 공판이 최근 연기된 데 대해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한관계의 관점에서 한국 측에 우려의 뜻을 전달해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美태평양사령관 “남중국해 中인공섬 주변 군함 재파견할 것”(11/23,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내 수역으로 군함을 다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만 왕보(王報) 등 중화권 언론이 23일 보도했음.
 -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 항공기와 선박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떠한 곳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며 앞으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 중재재판소(PCA)가 지난달 29일 해당사건을 다루기로 한 데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음.
 - 해리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중재 결과를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장성 “中, 지부티와 10년간 군 기지 사용계약”…中 시인(11/26, 연합뉴스)
 - 중국이 아라비아반도 부근의 아프리카 북동부 지부티와 10년간 군사기지 사용 계약을 체결했음. 26일 미 고위 장성이 전날(현지시간) 이를 공식 확인한 데 이어 중국 정부도 지부티에 군사기지 건설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시인했음.
 - 로드리게스 사령관은 “그들(중국)이 지부티에 군 기지를 건설하면 아프리카의 첫 (중국군) 군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조성될 중국군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물류 중심지 노릇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지부티는 우호국가로서 양국 간에 관련 시설 건설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지부티에 군 기지를 마련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로드리게스 사령관은 중국군이 아프리카에서 해 온 활동이 현재로서는 도발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지부티의 중국군 기지에 대한 미국의 경계는 커질 전망이다.

- 中, 美日 남중국해 합동훈련에 “무력과시 중단” 촉구(11/26,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권고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어 양국을 향해 “무력을 과시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음.
 - 이에 앞서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4일(현지시간)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과 만나 미군과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공동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사람은 남중국해에서 미·일·호주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동훈련 등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음.

- 中, 미군 인공섬 접근 시 ‘필요조치’ 예고…전운 재고조(11/27, 연합뉴스)
 - 미군이 최근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 해역에 함정을 재진입 시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중국군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히 경고, 부근 해역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2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대는 앞으로 ‘수요’(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안전, 해양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음.
 - 우 대변인은 “남해(남중국해) 항해의 자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미국이 이를 모르는 척하면서 거짓명제를 끌어안고 괜한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음.

- 미국-중국, 대만 무기판매로 갈등 고조될 듯(11/27, 연합뉴스)
 -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대만에 10억 달러(1조1천5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은 어떤 국가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고 독일 공영 라디오 방송 도이체벨레(DW)가 26일 보도했음.
 -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공식 발표하면 중국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 군사 교류 중단이나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군수 기업 제재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편, 워싱턴에 있는 한 연구소는 중국의 이런 대응 조치는 잠정적이며, 미·중 양국은 곧 정상 교류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한편 왕페이링(王佩玲)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의거해 대만에 방어성 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더 이상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음.
- 지부티에 중국·미국 눈독 이유는…아프리카·중동 핵심요충지(11/27, 연합뉴스)
 - 중국이 첫 해외 군사기지 건설지로 택한 아프리카 지부티는 미국도 아프리카 유일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곳임. 올해 중국의 지부티 군사기지 건설계획이 흘러나온 이후부터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해 왔음.
 - 우 대변인은 중국이 2008년 이래 21차례에 걸쳐 60여 척의 함정을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에 보내 항해안전 수호 임무를 전개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들이 정비, 식량 및 연료보급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하며, 따라서 이번 군사기지 건설은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우 대변인은 거듭 강조했다.
 - 지부티의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 미국도 이곳에 2003년부터 군사기지 캠프 르모니에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는 특수부대를 포함한 4천 명의 병력이 주둔하며 대테러 작전 등을 펼치고 있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왔던 미국으로서 중국의 지부티 군사기지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해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임.

바. 미·일 관계

- 이미티지 前미 국무부 부장관 “미군·자위대 통합운영 추진해야”(11/24, 연합뉴스)
 - 리처드 이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보도했음.
 - 이미티지는 23일 도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집단 자위권을 용인한 안보법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 뒤 “미·일 협력은 작전 운용상에서도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음. 그는 이어 “미국이 일본을 세계의 군사(군사 작전)에 관여시킬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일본 방위상, 사드 도입 검토 구상 처음 밝혀”(11/24,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 배치를 놓고 논란을 야기한 ‘사드’의 도입을 북한 탄도 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음.
 - 하와이를 방문 중인 나카타니 방위상은 23일(현지시간) 미군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시찰하고 스콧 스유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장비의 도입은 구체적인 능력 강화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사드 도입 검토 구상을 거론했음.
 - 일본의 사드 도입이 실현되면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미·일 동맹의 결속력을 더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이번 발언은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9월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가 추진되는 흐름 속에 미국 주도의 MD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日 “美와 남중국해 합동훈련 계속…상시 순찰은 계획 없어”(11/25, 연합뉴스)
 -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4일(현지시간) ‘캠프 스미스’에서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과 만나 미군과 자위대의 남중국해 공동 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두 사람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일본·호주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동훈련 등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음. 또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섬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처역량 강화를 지원키로 했음.
 - 나카타니 방위상과 해리스 사령관은 이와 함께 중·일 간 영유권 갈등지역인 ‘셴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침을 확인했음.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경계·감시를 할 계획은 없지만, 지금까지도 해상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고, 계속 그런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사. 미·러 관계

- 오바마 “러시아, 시리아 문제 전략적 결단해야” 압박(11/23, 연합뉴스)
 -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를 향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계속 지원할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집중할 지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관건은 러시아가 우리의 효율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조정을 할지의 여부”라며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을지 향후 수 주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알아사드를 증오하는 상황에서 알아사드 정권이 다시 정통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며 “그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음.

- 中 “러시아 IS 공습 지지”...공습 참여엔 부정적(11/23, 연합뉴스)
 - 홍콩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 측의 테러리즘 타격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는 시리아 문제는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또한 외국에서 자국민의 희생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적·물적 자원투입을 강화해 긴급 대응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인과 중국기관의 안전보장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 홍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이 테러 척결을 위한 러시아의 IS 공습을 지지하는 하지만 중국이 공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됨.

- 마러, 걸프해역 마주 보고 시리아사태 ‘외교전’(11/2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찾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인사를 만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공교롭게 같은 날 이란을 방문했음.
 - 케리 장관은 와병 중인 UAE 대통령을 대신하는 셰이크 모하마드 빈자예드 알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을 23일 만났으

- 며, 그는 회담 뒤 미국이 ‘이슬람국가’(IS)를 신속히 격퇴하기를 바란다면서 “극단주의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군사·외교적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고 말했음.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하루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났음.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공식적으로는 테헤란에서 열린 가스수출국포럼(GECF)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지만 이란 수뇌부와 만나 급박하게 전개되는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이란은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지만 일각에선 러시아가 그의 점진적 퇴진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옴. 한편,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문에 맞춰 여객기 100대를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대(對)이란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음.

■ 러 최신미사일 ‘터키 인접’ 시리아 배치…미국 “큰 우려”(11/26, 연합뉴스)

- 터키가 영공 침범을 이유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자 러시아가 터키 영토를 사정권에 둔 최신예 미사일의 시리아 배치를 선언, 긴장이 증폭되고 있음. AP, AFP통신은 러시아가 최신예 S-400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 공군 기지에 배치했음을 확인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S-400은 공중에서 우리 전투기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떤 목표도 파괴할 것”이라며 “앞으로 러시아 폭격기는 항상 전투기 호위를 받는다.”고 밝혔음.
- 미국 정부 관계자는 즉각 “누구에게든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며 “시리아 내 공습 작전에 큰 우려가 제기된다.”고 경계했으며, 중동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찰스 브라운 주니어 공군 사령관은 “일이 복잡해진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할 일이 있다. 이슬람국가(IS) 격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음.
- AFP통신은 “시리아 반군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인을 죽이면서 시리아 내전이 일종의 대리전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관측했음.

■ 푸틴, 올란드에 “미국 주도 IS 격퇴전 협력할 준비됐다.”(11/27,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작전에 협력할 준비가 됐으며, 온건 반군을 공습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음.

- 타스와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저녁 모스크바를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IS 공습 표적을 선정하기 위해 프랑스 및 미국 주도 연합군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주말 발생한 터키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터키 공군이 러시아 수호이(Su)-24 전폭기를 식별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했고, 특히 러시아가 미국에 러시아 전폭기의 비행경로를 사전에 공지했다며 “미국은 러시아 전폭기의 비행 위치와 시간을 알고 있었고,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격추됐다.”고 설명했다.

아. 중·일 관계

- 아베-리커창 5분 ‘스탠딩’ 대화…“한·중·일 3국 관계개선 추진”(11/23,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5분간 대화를 하면서 한·중·일 3국 관계 개선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음.
 - 리 총리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약 3년 반 만에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회담이 성사돼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가 됐다.”고 평가한 뒤 “매우 큰 성과이며, 미래에도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고, 아베 총리는 “리 총리와의 정상회담(1일·서울)과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 됐다.”며 “(일본과 중국 사이의) 분위기도 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베 총리는 최근 각종 다자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한편 경제 및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듯 중국과의 양자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양새임.

자. 중·러 관계

- 중·러 고속철 합작회사 설립…모스크바~카잔 고속철 건설(11/27,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모스크바와 타타르공화국의 수도 카잔을 연결하는 고속철을 건설할 예정이며, 해당 고속철은 나중에 연장 건설되는 모스크바와 베이징 구간 고속철의 일부로 활용될 것임.

-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7일 양국 정부가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모스크바-카잔 구간의 고속철 건설에는 중국 측에서 창춘(長春)철도차량유한공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모스크바-카잔 구간은 총연장 770km로 러시아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2018년 이전에 완공될 예정이며, 철도가 완공되면 이 구간 소요시간이 지금의 14시간에서 3시간 반으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 러 중앙은행, 중국 위안화 외환보유액에 포함시키기로(11/27, 연합뉴스)
 -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외국 통화에 중국 위안화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복수 소식통은 현재 주로 미국 달러와 유로, 영국 파운드 등으로 구성된 외환보유고에 위안화를 포함시키는 결정이 이달 중순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은 당장은 위안화 자산을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매입을 시작하더라도 위안화가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은행은 위안화 거래가 이뤄지는 모스크바 증시에서 위안화 자산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은행이 위안화 매입에 나서면 중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은 유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유엔 지원 어린이용 분유 돌격대에 공급”(11/25,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올해 5월부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과 군인들에게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지원한 가루우유와 영양과자를 공급하고 있다고 함.
 - 유엔세계식량계획, 즉 WFP가 북한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지원한 가루우유가 최근 밀가루와 함께 ‘백두산관광철도’ 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음.
 - 양강도의 소식통은 “올해 4월 김정은이 백두산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 하면서 건설자들을 잘 먹일 데 대해 지시했다”며 “이후 어린이들을 먹여야 할 가루우유와 영양과자가 돌격대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음.
 - ‘WFP’라는 글자가 새겨진 영양과자는 매주 20개씩 돌격대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가루우유는 지대(종이자루)에 포장된 것들이 돌격대원들에게 공급됐고 지함(박스)에 포장된 분유는 돌격대 간부들 차지였다고 그는 설명했음.
 - 소식통은 “이는 올해 ‘청년절’ 김정은이 청년동맹 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돌격대원들에게 일을 시키려면 먼저 잘 먹여야 한다’는 방침을 내린데 따른 것”이라며 “돌격대원들의 저녁식사는 우유를 넣은 밀가루 음식이고 아침에도 돌격대원들에게 따뜻한 우유 한잔씩 먹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중·러 파견 북한 노동자, 임금 70% 북한 당국에 상납”(11/25, 자유아시아방송)
 -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이다혜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북한 노동력 실태조사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 이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중국 옌벤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7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음.
 -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월과 10월 이 두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연해주에선 한국 외교부 총영사와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 농업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옌벤에선 현지의 북한 노동자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음.

-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연방지구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배당된 월 상납금은 미화 250달러에서 550달러 정도로 월 700~800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건축기술자들도 상납금을 내고 나면 개인 몫으로 100달러 정도만 남는 실정임.
 - 중국 옌벤 지역도 사정이 비슷해 월 임금 수준이 중국 돈 약 2천 위안, 미화로 300달러가 조금 넘지만 상납금을 빼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100달러 수준임.
 - 이 연구위원은 특히 러시아에선 임금 수준이 낮은 단순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이런 과중한 상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따로 일자리를 구해 이중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구직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해 공장과 숙사를 중심으로 활동 공간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 노동의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음.
- 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부 유보조항 철회(11/26, 미국의소리)
-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른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했던 3개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을 철회한다고 밝혔음.
 - 유엔은 북한이 11월 23일 이 같은 결정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통보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음.
 - 유보는 다자조약 체결 시 특정 조항의 효과가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국이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유보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북한은 지난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3가지 조항을 유보한다고 밝혔음.
 - 이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법률 규칙 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과, 자녀의 국적에 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에 적용했던 유보를 철회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이제 북한이 유보한 협약의 조항은 당사국 간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조항 하나만 남았음.

- “북 지난 4년간 간부 130여명 처형”(11/26,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은 시대의 2인자나 실세는 예외 없이 숙청당했다”고 남한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1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지적했음.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영호, 장성택, 현영철 숙청에 이어 최근 최룡해마저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김정은은 “권력의 핵심층인 노동당과 군부 내 간부들을 숙청하면서 1인 유일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이라는 설명임.
 - 김정은 시대 들어 숙청의 형태도 달라졌는데, 김일성은 남로당과, 연안파, 소련파 등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숙청했고 김정일은 1997년 서관희 농업 담당 비서나 2009년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처형처럼 “정책적 실패에 따른 숙청”을 했다면, 김정은 시대의 숙청은 “개인적 감정”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 같다는 것임.
 - 김정은 제1비서가 공포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이 수석연구위원은 “나이가 많은 간부들에 대한 불신”을 들었는데, “연로한 간부들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것임.
 - 둘째로 김정은은 “간부들 개개인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들며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간부들의 성향을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불안감도 클 것”이라고 진단했음.
 - 셋째 원인은 김정은의 개인적 성격인데, 이 수석연구위원은 “별도 재판절차도 없이 군 최고위 간부를 공개 처형하는 공포정치는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못하고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음.
 - 이 공포정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위신 확립과 일사불란한 충성의 대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체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음.

- 양강도, 일부 기관에 감자전분 배급(11/2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양강도 당국이 “올해 모든 주민들에게 식량으로 5개월분의 감자를 공급한데 이어 최근에는 배급대상인 기관기업소들에 석 달 분의 감자전분을 따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음.
 -

- 올해 양강도의 감자농사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생산량을 기록했는데 수확한 감자의 보관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강도 농사의 기본인 감자는 수확량이 높은 반면 보관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러한 보관문제가 제기되자 북한 당국은 남은 감자들을 모두 전분으로 만들도록 협동농장들에 지시했다며 감자 자체는 보관이 어렵지만 전분으로 만들면 습기나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보관이 쉽다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11월 26일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감자는 10kg을 갈아야 겨우 1kg 정도의 전분을 얻을 수 있다”며 “중앙에서 감자를 전분으로 만들어 식량으로 공급할 정도면 올해 농사가 그만큼 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음.
 - 올해 양강도는 보천군과 운흥군, 삼수군에서 정보당 30톤 이상의 감자를 수확했고 대흥단군과 백암군 ‘10월 8일 협동농장’, 삼지연군 ‘포태 국영농장’은 정보당 최고 50톤의 감자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 감자전분을 배급으로 받는 단위는 당, 사법, 행정기관과 철도, 통신, 교육, 보건기관들이라고 말했음.
- 북한에도 ‘형식적인’ 변호사 있다(11/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도 형사 재판에 변호사가 입회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11월 28일, 최근 북한 교도소를 출소한 경제사범의 말을 인용해 “재판에 판사와 검사가 등장하고 변호사와 증인이 참석하는 등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변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 교화소에서 2년 간 복역한 이 경제사범은 재판에 앞서 예심을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예심과정은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보안서는 예심에서 얻은 자백서와 증거 등을 자료화해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재판과정과 관련해 이 경제사범은 “판사와 검사 등 5명이 참여했고 증인과 변호사도 있었다”며 “하지만 방청인이나 가족들은 참가시키지 않고 재판할 대상자를 여러 명 모아놓고 한 번에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음.
 - 재판도 자백한 내용만 읽어주고, “공화국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몇 년 형의 교화형에 처한다”는 판결만 내릴 뿐, 변호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다”는

것이 당시 재판에 받은 경제사범의 설명임.

- 모든 재판에 변호인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단련대’ 처벌과 같이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리되는 범죄는 변호인이 필요 없지만, 탈북자나 단순 월경으로 체포된 사람 등은 형사법으로 처리돼 형식적이거나 변호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북한인권

- “반기문 방북, 핵·인권 해결 계기돼야”(11/25,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로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평양 방문은 시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 총장이 남한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방북 계획을 정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해석도 있음.
 - 그러나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에 있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산되는 것보다는 성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제132호 ‘현안진단’에서 밝혔음.
 - 특히 핵 문제와 인권문제는 반 총장이 방북할 경우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현안진단’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말했음.
 - 고 이사는 “방북이 성사되면 반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의 거듭된 대북결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요구하고 북한에도 이와 관련한 발언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또한 고경빈 이사는 “비핵화와 인권문제가 반 총장의 일회성 방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면서 “유엔 차원에서 두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북한의 ‘회피’와 ‘항의’ 단계를 지나 ‘논의’ 단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다만 두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 총장이 북핵 문제보다는 인권 문제의 해결 노력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음.
 - 따라서 “반 총장의 방북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나 유엔 사무국의 국제 인권 담당 고위관리가 수행하거나, 서울에 설치된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대표가 동행하는 문제를 과감히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음.

- 유럽 탈북민단체,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인권 관심 촉구(11/26, 연합뉴스)
 -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유럽의 탈북민 단체들이 ICC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음.
 -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와 네덜란드 체류조선인망명자협회는 11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ICC 당사국총회 참석자들에게 북한 인권 관련 호소문을 배포했음.
 - 탈북민들은 호소문에서 지난 19일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소식을 전하면서 ICC에 대해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음.
 - 이 호소문은 북한 노동자들이 폴란드, 몰타, 러시아, 중동 등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해 벌어들인 외화를 북한 독재정권이 탈취해가는 현실과, 2010년 11월 23일에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음.
 - IC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탈북민들의 활동을 격려했다고 유럽총연 관계자가 전했다.

- 다루스만, 마지막 방한서…“北 인권침해, 책임 규명할 단계”(11/26, 동아일보)
 -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월 26일 임기를 마무리를 앞둔 마지막 한국 방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인도범죄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단계에 진입했다”며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정보와 증언을 수집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엔 총회는 지난해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올해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인권침해 시스템을 구축한 북한 체제 자체가 해체(dismantle)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바로잡기도 했음.

- 그는 지난주 러시아와 북한이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한 것을 두고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탈북자)을 강제복송하는 게 쉬워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 2010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다루스만은 재임기간 수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으나 한번도 성사되지 못했다.
 - 그는 ‘북한이 거절하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딱 한번 답변을 들었는데 ‘유엔 인권결의안 내용을 변경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곧바로 방북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 북한은 21일 외무성 담화에서 “우리의 인권 실상을 직접 와서 보라고 유럽연합(EU)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한 관계 인물들을 초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 자신들은 “우월한 인권보장제도와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시책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를 보여주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EU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임박 등 군사위협 때문에 방북을 일시 연기한 상태임.
- ‘북한인권 국제협력 모색’...법무부, 27일 심포지엄(11/26, 연합뉴스)
 - 법무부는 11월 27일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한다고 밝혔다.
 - 심포지엄은 ▲ 반인도적 범죄 책임 규명 방안 ▲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 방안 등 2개의 주제로 진행됨.
 - 행사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 홍성필 유엔자의적기금실무그룹 위원장, 사인 폴슨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장 등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함.
 - 법무부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탈북자

- HRW, 한중 정상에 ‘탈북자 보호’ 서한(11/25, 자유아시아방송)
 - 휴먼라이츠워치는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복송하지 않도록 중국 지도자들을 압박할 것을 요청했음.
 - 중국 내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한국 등 원하는 나라에 망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해야 한다는 것임.

-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된 후 중국으로 넘겨져 현재 북중 국경지역인 투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자들이 언제든 강제북송될 수 있다고 우려했음.
 - 그러면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나서 중국 당국이 이들을 북송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만일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같은 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서한을 보내 탈북자 9명의 현재 소재지를 밝히고 난민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음.
 - 만일 중국 당국이 박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 북송시킨다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해가 되고 중국의 국제법 준수 의지가 의심받게 될 것이란 지적임.
- 미, 북러 형사공조 강화에 “탈북자 보호해야”(11/27, 미국의소리)
-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서명한 ‘범죄인인도조약’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 국무부는 양국 간 이 같은 형사공조가 러시아로 탈출한 탈북자 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마루스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관련 발언을 알고 있다고 답했음.
 -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북한이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한 데 실망을 표시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 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음.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역내 국가들에 대한 당부 형식으로, 자국 내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음.
 - 특히 각국에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들 조약의 보호 대상인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음.
 -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물론 강제송환 된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처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이어 미국은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 이산가족

- 미 의회서 내주 이산가족 토론회(11/2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 미국 의회 의원회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료와 하원의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 이 단체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하원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1월 24일 말했다.
 - 이 사무총장은 이산가족문제를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시키기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이산가족의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을 다시 만나도록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미국 의회에서 이산가족 기록영화 상영회를 열어 의회 의원들과 국무부, 적십자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도 했음.
 - 이 사무총장은 올해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참여 대상도 미국에 있는 한인들 비롯한 전 세계의 이산가족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5. 남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프랑스 NGO, 홍수 피해 라선시 유치원 복구 지원(11/27, 미국의소리)
 - 프랑스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함경북도 라선 시 선봉 지구에 있는 ‘백학동 유치원’ 복구 사업에 나섰다.
 - 이 단체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으로부터 1만 3천 340유로, 미화 1만 5천 달러를 지원 받아 이달 초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발생한 홍수로 파손된 유치원 건물을 복구해 6살 미만 영유아 어린이 120여 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이 단체는 지난 8월 22일부터 사흘 간 라선 시 일대 폭우로 인한 홍수로 60여 명이 사망하고 5천 400여 채의 주택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 또 학교와 유치원, 병원, 진료소 등 공공건물과 다리, 도로, 철길 등이 파괴되고, 125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 특히 이 홍수로 라진 지구와 선봉 지구의 피해가 극심했다며,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선봉 지구 백학동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8. 북한동향

- 미국의 ‘北 인권문제 제기(‘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서울인권회의’ 발언 등)’를 “대조선 제도전복을 노린 가소로운 추태”라며 ‘미국의 對北 전복책동에 단호히 대응 및 북한식 사회주의제도 고수’ 강조(11.24, 중앙통신 논평)
- 현 남북관계 관련 ‘南 당국은 대화를 떠들면서 반공화국 핵공조와 인권모략공조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이 빛어낼 것은 남북관계 파국뿐’이라고 주장 및 ‘실천행동으로 대화와 관계개선 의지를 보일 것’ 요구(11.25, 중앙통신·노동신문/관계개선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